

도시주부의 혼례의식 · 혼례행동 및 혼례만족*

- 신혼기주부와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를 중심으로 -

Wedding Consciousness, Behavior and Satisfaction of the Urban Housewives*

- Focus on young housewives and mothers of married daughters -

숙명여자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강사 김명나

교수 이정우

Dept. of hom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Lecturer : Myung Na Kim

Prof. : Jeong Woo Lee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deals with relationship among wedding consciousness, behavior and satisfaction of both young housewives and mothers of married daughters.

The major result are as follows :

- 1) In comparisons of difference among wedding consciousness, behavior and satisfaction of young housewives and mothers of married daughters, young housewives showed more modern wedding consciousness, more rational wedding behavior and higher wedding satisfaction than mothers of married daughters.
- 2) It shows that wedding consciousness of young housewives and mothers of married daughters so influenced wedding behavior, that the more modern wedding consciousness they have, the more rational wedding behavior they show.
- 3) It is proved that variable which has impact on wedding satisfaction is preparing of articles essential to a marriage and receiving wedding presents of both young housewives and mothers of married daughters.

*본 논문은 박사학위논문의 일부임.

I. 서론

오늘날 사회 전부분에서의 커다란 변화는 혼례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일반적으로 약혼, 함들이, 혼인식, 신혼여행 등으로 이어지는 혼례절차나 규모도 많이 변화했고, 혼수규모의 전반적인 증대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즉 현대사회는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이 강조되고 있으나 뚜렷한 가치관 부재로 인한 혼란, 시장경제의 발달과 함께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모순적 측면으로 나타나는 물질만능주의와 상업화로 호화약혼식이나 혼인식, 과다혼수 등 전반적인 혼례가 허례허식화되어 과소비, 사치 풍조 등의 문제를 야기시켰다. 그리하여 이러한 문제들은 혼례를 치르려는 혼인당사자나 부모에게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안겨줄 뿐 아니라 이러한 혼례풍조가 사회 전체로 확산되어 갖가지 사회병을 심화시키는 병인(病因)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핵가족화와 더불어 배우자선택관이 변모되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연애혼이 증가하고 있고 혼례에 대한 의식도 많이 변하여 근대화되어 가고 있으므로 우리의 혼례문화를 건전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견해가 여러 연구결과에서 나타나고 있으나 혼례를 수행할 때에는 합리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종종 볼 수 있다. 또한 신부측 혼수의 과다가 혼인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을 뿐 아니라(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1990; 저축추진중앙위원회, 1990, 1993, 1996; 한국소비자보호원, 1997; 한국가정생활개선진흥회, 1997), 대부분의 신혼기 주부들이 의례적인 혼인비용지출에 대해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기춘·조은정, 1992) 주부의 혼례행동이 합리적일수록 혼례만족이 높은 것을 볼 때(이정우·김명나, 1997), 혼례만족도를 높이고 바람직한 혼례문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합리적인 혼례행동의 실천이 요구된다.

이상에서 볼 때, 혼례의식과 혼례행동 및 혼례만족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지금까지의 혼례에 대한 연구는 주로 실태조사나 혼례에 대한 의식과 행동을 연

구하는 수준에서 그쳤다(이길표, 1982; 이행숙, 1982; 한경순, 1986; 김명나, 1989; 손유미, 1990; 장은영, 1990; 유현주, 1991; 이선영, 1992 등). 간혹 사회학 분야에서 혼수 및 혼인거래관행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는 했으나(김모란, 1994; 최경숙, 1995), 혼례행동과 혼례만족을 관련짓는 연구(이정우·김명나, 1993, 1997)는 극히 적을 뿐 아니라 배우자선택이나 혼수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이었다(박민자, 1990; 박숙자, 1990; 이기춘·조은정, 1992; 정용선 외, 1995). 따라서 혼례의식과 혼례행동 및 혼례만족간의 관계에 대해 실증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혼례에 있어 가부장적 사고의 잔재가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존도가 높고 부모들이 혼례혼수를 주관하는데서 생겨나는 과소비, 낭비 등과 같은 부작용이 초래되었다. 즉 가속화된 상업화는 혼례절차나 구입상품을 더 고급화, 대형화시켰고 함이나 혼수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물질적인 가치가 팽배해서 나타났으며, 특히 가부장적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는 우리 사회에서 혼례는 여성에게 더 많은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혼인당시 혼인당사자이며 신부였던 비교적 젊은층 주부를 연구대상으로 했고, 또한 자신의 딸의 혼례과정이나 혼수장만 등에서 실제적인 권한을 행사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어머니를 연구대상으로 했다. 따라서 신혼기주부와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를 대상으로 혼례절차의 전 과정 즉 배우자선택, 약혼, 혼수·함, 혼인식(폐백) 및 신혼여행에 대한 의식·행동·만족에 관하여 두 집단을 비교한 혼례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혼례로 빚어지는 사회문제를 직시하여, 신혼기주부와 딸을 혼인시킨 어머니를 대상으로 그들의 혼례의식과 실제 행동 및 혼례후의 만족도를 비교 분석하여 혼례에 대한 건전한 의식을 함양하고 혼례절차의 모든 단계 및 혼수장만 등에서 겪는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혼례후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혼례의 의미 및 절차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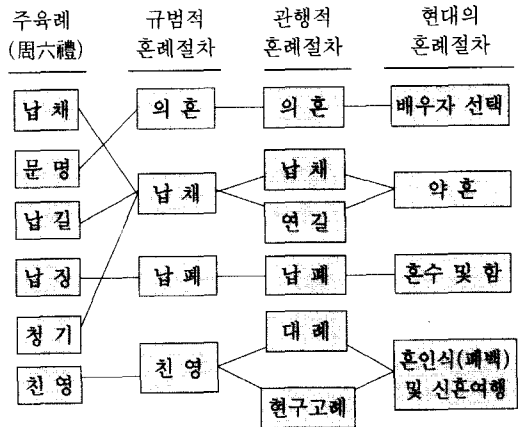
1) 혼례의 의미

혼례는 인륜지대사라하여 옛부터 오늘날까지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가장 경사스럽고 중대한 통과 의례로 인식되고 있으며, 개인에게는 물론 가족과 사회에 대하여 매우 의미있고 중요한 행사이다. 그러나 요즘의 혼례는 그 의미 뿐 아니라 형식과 절차 면에서 많은 변화를 하였다. 즉 과거에는 혼인이 가문과 가문의 결합을 강조하였으나 현대에는 혼인당사자간의 애정과 인격의 결합이 강조되면서 자유연애혼이 보편화되었다. 또한 산업화, 교육수준의 상승 등으로 인해 혼인당사자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근대화에 따른 핵가족화 현상이 확산됨으로써 신혼부부가 독립된 세대를 형성하는 상황에서 혼례를 치름으로써 혼례에 대한 부모 의존도가 증가하였다. 더우기 혼인에 대한 사고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나 실제 행례(行禮)면에서는 남녀 양가의 공동체적 결합을 강조하는 경향이다. 이렇게 혼례는 삼서(三誓)정신 등의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고 그 절차나 형식면에서 혼주가 부모가 되는 상황에서 급격한 경제성장 및 자본주의적 산업화로 인한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해지면서 혼례의 외형적 허례허식이 일어났으며, 서구문화의 유입으로 인한 전통과 현대의 복합적인 혼례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근래에 들어서는 전통혼례의 의미가 왜곡되고 걸치례와 체면 등을 중시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혼례문화 풍조가 만연되어 계층에 관계없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2) 혼례절차의 변화

고례(古禮)에는 혼례가 육례(納采), 문명(問名), 납길(納吉), 납징(納徵), 청기(請期), 친영(親迎)인데 비해서 주자가례에는 사례(의혼(議昏), 납채(納采), 납폐(納幣), 친영(親迎))로 되어있다. 이 육례(六禮)와 사례(四禮)는 서로 혼효(混淆)되어 우

리나라에 도입되었으며, 조선왕조에서는 혼례가 주자가례(朱子家禮)를 준거로 하여 사례편람(四禮便覽)에서 의혼, 납채, 납폐, 친영인 사례로 마련됐다. 그런데 사례는 우리나라 혼례 규범의 이상형이고, 실제 관행되었던 실천형은 의혼(議婚), 납채(納采), 연길(涓吉), 납폐(納幣), 대례(大禮), 현구고례(見舅姑禮)의 6단계로 제시되었으며(장철수, 1995), 이 관행적 혼례절차¹⁾를 전통혼례의 원형으로 보고 이것을 토대로 하여 변화된 오늘날 행해지는 혼례를 현대의 혼례절차²⁾로 삼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의 혼례절차를 4단계로 구분했다. 즉 전통혼례의 의혼에 해당하는 것을 오늘날의 배우자선택으로, 납채(연길 포함)에 해당하는 것을 약혼으로, 납폐에 해당하는 것을 혼수 및 함으로, 대례(현구고례 포함)에 해당하는 것을 혼인식(폐백) 및 신혼여행으로 연결시켜 구성했다. 이상의 혼례절차의 변천과정을 간략히 도식하면 <그림 1>과 같으며, 혼례절차



<그림 1> 혼례절차의 변천과정

- 1) 박혜인은 우리나라의 혼인관행을 4단계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학자마다 우리의 관행적 전통혼례를 5, 6, 7단계 등으로 나누어 조금씩 달리 설명하고 있다.
- 2) 현대의 혼례절차는 안지영(1988), 조양재(1989), 김상혁(1989), 김명나(1989), 이선영(1992), 홍남석(1992), 김옥희 외(1995), 김종순(1995), 최경숙(1995), 유덕선(1996), 김득중(1997) 남성희(1998) 등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의 변천과정을 각 단계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1) 의혼: 배우자선택

전통사회에서의 혼인의 성립은 의혼이라는 과정을 통해 부모와 중매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근래에는 근대 민주사상의 전파로 혼례에도 변화가 일어나 중매혼은 많이 타파되고 자유혼이 유행되기 시작했으나 현대에 들어서도 여전히 중매혼이 행해지고 있으며, 연애혼과 함께 절충혼도 새로운 혼인 성립 유형으로 나타났다.

(2) 납채(연길 포함): 약혼

전통혼례의 납채는 오늘날의 약혼에 해당되며, 근래의 약혼식 절차는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약혼식에 참석하는 사람도 신랑 신부의 부모형제를 비롯한 가까운 친지와 친구에 국한되는 것이 보통이다(혜원편집부, 1996).

(3) 납폐: 혼수 및 함

전통사회의 일반적 혼속은 신랑집에서 신부집에 예물적 성격의 재화를 보내는 납폐와 신부의 생활용품 및 예단이 일반적 혼수품목이었다. 그러나 60년대 산업화이후 핵가족화 및 신거주제가 보편화됨으로써 신부측이 살림살이를 일체 장만하는 형태로 확립되면서 신혼살림살이를 비롯하여 예물, 예단에 이르기까지 그 양과 질에 있어 상당한 증가를 가져왔다(김보란, 1994). 한편 서구 문물에서 유입된 신식혼인의 확산, 경제적 소득증대로 인해 신혼여행이 유행되면서 여행용 가방이 함으로 이용되어 신랑 친구들이나 신랑이 직접 함을 가지고 가는데, 그 속에는 채단은 물론 여러 가지 예물을 넣기도 하며 이 때 전달되는 과다한 혼수품은 오늘날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4) 대례(현구고례 포함): 혼인식(폐백) 및 신혼여행

친영은 조선초기까지 지속되어온 서류부가혼속으로 인해 시행하기 어려운 절차였으나 가례의 도입 이후 친영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았고, 후기로 갈수록 삼일대반(三日對飯)이라는 반친영(半親迎) 의례가 보급되었다. 일제시대에는 전통적인 혼례가 간소화되었다가 '신식결혼식'이라는 형식으로 바뀌면

서 '신·구식'의 혼합형식으로 변하고 이때에는 '천도교식', '기독교식'과 같은 종교적 의례의 단계를 거치고 있다. 최근에는 혼례가 서구화되어 예식장, 회관, 호텔 등에서 치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종교적 혼인식도 있다. 혼인식에 이어서 신부는 재래의 현구고례에 해당되는 폐백을 드리는데, 요즘은 대개 예식장의 폐백실에서 신랑 신부가 시댁어른과 친지들을 모셔서 큰 절을 하고 술을 올린다(한국여성교양학회, 1995). 혼인식이 끝나면, 대부분의 혼인식장에서는 하객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며, 혼인식을 마친 신랑 신부는 신혼여행을 간다(김득중, 1997).

2. 혼례의식과 혼례행동

근래에는 과거에 비해 혼례의식이 가문중심의 전통사상에서 벗어나 자기중심적인 입장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혼례에 대한 의식도 근대적으로 나타났다(한경순, 1986; 이길표·주영애, 1989; 박진숙, 1990; 이정우·김명나, 1993). 혼례행동은 본인의사를 중시하며 대외적·과시적인 체면의식이 높게 작용하여 행해지고 있으나(이길표, 1989; 이길표·주영애, 1989; 손유미, 1990), 혼례에 대한 행동은 비교적 합리적으로 나타났다(이정우·김명나, 1997). 반면 전국 1200가구의 기·미혼남녀 및 기·미혼자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혼례에 대해 자기분수와 형편에 맞고 김소하게 해야 한다는 건전한 의식을 지니고 있으나 실제로 자신의 일이 되었을 때는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한국가정생활개선진흥회, 1997). 한편 혼례에 대한 의식과 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주부의 혼례에 대한 의식은 행동보다 근대적이었는데 이는 몇몇 연구결과(손유미, 1990; 이정우·김명나, 1993)와도 일치한다. 하위영역별로 보면, 배우자선택, 약혼, 혼수·함에서는 의식이 행동보다 근대적이었으나 폐백에서는 행동이 의식보다 근대적으로 나타났다(김명나, 1989).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혼인행사에 대한 의식과 행동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배우자선택이나 혼수마련, 예단, 예물준비, 폐백을 받으시는 분의 범

위와 같은 혼인행사에 대해서는 전통적 의식을 갖고 있을 때 행동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사주교환이나 혼인날 결정, 함반기, 폐백드리기, 폐백시 절하기 등에 대해서는 전통적 의식을 갖고 있으나 실제 행동에서는 전통의식대로 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선영, 1992).

3. 혼례만족

혼례행동 후의 혼례만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혼수가 혼인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전국 5개 도시의 신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혼수로 인해서 약 20%가 가장불화를 경험했다고 보고했고(한국소비자보호원, 1990), 주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혼수로 인한 문제는 없었지만 심리적으로 편안치 않은 상태(27.1%)라고 응답했으며, 혼인생활에 위협을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갈등이 있었다(9.2%)고 응답했다(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1990). 저소득층 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혼수가 혼인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적었으나 시부모와의 관계에 혼수문제가 영향이 있었다는 응답은 25.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 중산층 주부의 경우에도 대부분 혼수가 혼인생활에 영향을 미친 적이 거의 없다고 보고했다(박민자, 1990). 신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11.9%가 신혼살림용품 가운데 현재의 실생활에 오히려 「불편을 주는 것이 있다」고 응답했으며(저축추진중앙위원회, 1996), 신혼주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예단이 「혼인생활에 좋은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5%에 불과해 예단이 혼인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크지 않음을 보여주었다(한국가정생활개선진흥회, 1997). 또 신부측이 신랑측에 보내는 혼수는 신랑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혼인생활에 불리한 영향을 줄까봐 신부측에서 많은 혼수를 해야겠다는 일반관념이 잘못된 것임을 시사한다고 했다(정용선 외, 1995). 한편 이정우·김명나(1997)의 연구에서는 주부의 혼례행동이 합리적일수록 혼례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4. 혼례의식·혼례행동 및 혼례만족간의 관계

혼례의식과 혼례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주부의 혼례의식과 혼례행동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혼례에 대한 의식이 근대적일수록 혼례에 대한 행동이 근대적으로 나타났다(김명나, 1989). 또한 통과의례에 대한 의식과 행동을 연구한 결과를 보면, 주부의 혼례에 대한 의식과 행동은 정적 상관을 보여 혼례에 대한 의식이 전통적일수록 행동도 전통적으로 나타나(손유미, 1990) 위의 결과와 일치한다. 혼례의식과 혼례만족과의 관계에서는 주부의 혼인식에 대한 의식이 근대적일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혼례행동과 만족간의 관계에서는 주부의 혼인식에 대한 행동이 근대적일수록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이정우·김명나, 1993). 또한 혼례행동과 혼례만족간의 관계에서 주부의 혼수장만은 혼례만족에 영향을 미쳐 혼수장만이 합리적일수록 혼례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주부의 혼수장만은 혼례만족에 직접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배경변인이 혼수장만을 경유하여 혼례만족에 간접 영향을 미쳐 혼수라는 변인이 혼례만족의 중요한 매개변인임이 밝혀졌다(이정우·김명나, 1997).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주부의 혼례의식과 혼례행동 및 혼례만족간에는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5. 관련변인 고찰

오늘날 혼인절차와 혼인비용의 지출수준은 「경제력이 닿는 한 많이 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임을 볼 때 혼례에 있어 강한 물질주의 성향을 엿볼 수 있다고 했다(한국가정생활개선진흥회, 1997). 소비자보호협회(1990)의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65.0%가 예단준비시 주위친구나 친척의 의견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시 중간계층 주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혼인과정에서 상호 교환하는 물품의 양과 질의 기준은 형제자매의 선례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으며(최경숙, 1995), 한국가정생활개선진흥회(1997)의 조사에 의하면, 혼인당사자나 부모는 자신의 주관도 없이 남들이 하

는 대로 혹은 경쟁적으로 혼례를 치르려 하므로 이것이 점점 더 상향된 소비풍조를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자아긍정감이 높은 주부일수록 배우자선택에 대한 행동이 합리적이고 혼례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이정우·김명나, 1997),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의 경우 과소비통을 통해 자기를 향상시키려는 동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은아, 1994). 한편 혼인준비에서부터 혼인이 이루어질 때까지 배우자측과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 가라는 질문에서 46.3%가 충분한 대화로 문제가 없었다고 응답했고, 38.3%는 약간의 문제는 있었지만 원만히 해결되었다(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1990)고 응답했으며, 장은영(1990)의 연구에서는 과다혼수에 대한 예방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이 양가 부모나 당사자와의 대화라고 응답했다. 이정우·김명나(1997)의 연구에서는 주부의 소득적정감이 낮을수록 혼인식 및 신혼여행을 합리적으로 했으며, 시대 및 친정생활수준인지도가 낮을수록 합리적인 혼례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모란(1994)은 신랑의 학력이나 학벌이 높고, 직업이 전문기술직이거나 관리직일수록, 시댁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신부측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혼인거래관행상 신랑측의 자원이 신부측이 제공하는 물질적 보상과 교환됨을 확인시켜주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 1) 신혼기주부와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의 혼례의식, 혼례행동 및 혼례만족간에는 차이가 있는가?
- 2) 신혼기주부 및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의 혼례의식은 혼례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3) 신혼기주부와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의 객관적·주관적 변인, 혼례의식과 혼례행동 및 혼례만족간의 인과관계는 어떠한가?

2. 측정도구

1) 객관적·주관적 변인

객관적 변인은 학력, 직업, 월평균가계소득, 종교 유무, 혼인형태 등이며, 주관적 변인 중 자아긍정감 척도는 손현숙(1991), 박은령(1992)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10문항으로 구성했다(신뢰도³⁾ $\alpha=.72$). 물질주의성향 척도는 Belk(1985), Richins(1987), 임정(1988), 송인숙(1993), 백경미(1995)의 연구를 기초로 10문항으로 구성했으며(신뢰도 $\alpha=.83$), 준거집단영향력 척도는 황영진(1992), 오용구(1992), 안경덕(1994), 박한진(1995), 조영희(1996)의 연구를 기초로 10문항으로 구성했다(신뢰도 $\alpha=.84$). 시모(친척) 및 친모(기혼딸)와의 친밀감·상호작용 척도는 이영희(1987), 이경희(1987), 신기영(1991), 박수정(1992), 김순기(1993), 이상원(1993), 안명자(1994), 이인숙(1995), 유지영·김명자(1996)의 연구를 기초로 18문항으로 구성했다(신뢰도 $\alpha=.90$). 가족의존비도 척도는 이정우·안동선(1989), 하상희(1994), 이명숙(1995)의 연구를 기초로 10문항으로 구성했으며(신뢰도 $\alpha=.85$), 소득적정감 척도는 Sumarwan과 Hira(1993), 박미금(1993), 이명숙(1995)의 연구를 기초로 4문항으로 구성했다(신뢰도 $\alpha=.84$). 혼인거래관행인지도 척도는 박민자(1991), 김모란(1994), 정용선 외(1995), 최경숙(1995)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9문항으로 작성되었으며(신뢰도 $\alpha=.96$), 이상의 각 변인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시가(기혼딸) 및 친가 생활수준인지도 척도는 김모란(1994), 하상희(1994), 백경미(1995)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각각 1문항씩 구성했으며 9점 리커트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수준을 인지하는 정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2) 혼례의식 변인

혼례의식 변인은 이길표(1982), 한경순(1986), 박혜인(1986), 김명나(1989), 손유미(1990), 유현주

3) 신뢰도는 지면 관계상 신혼기주부를 대상으로 하여 나온 값을 제시하였음.

(1991), 이정우·김명나(1993) 등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현대적 혼례양상에 적합하게 변형시켜 구성했고(신뢰도 $\alpha=.74$), 배우자선택, 약혼, 혼수 및 함, 폐백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는 것으로 총 12문항이며, 각 문항은 5점 리커트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혼례의식이 근대적임을 나타낸다. 혼례의식이 근대적이라는 의미는 전통적이라는 말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전통적 의식이라 함은 조전조를 기점으로 한 전통 사회의 색채가 강한 형식을 추구하는 혼례에 중점을 둔 의식이며, 근대적 의식은 산업화·서구화 등으로 인하여 근대화가 이루어진 후 편의주의와 개인주의 색채가 강화되고 간소화된 혼례에 중점을 둔 의식을 의미한다.

3) 혼례행동 변인

혼례행동 변인은 박혜인(1989), 김명나(1989), 유현주(1991), 이선영(1992), 이정우·김명나(1993), 최경숙(1995), 저축추진중앙위원회(1996), 이정우·김명나(1997) 등의 연구를 기초로 구성했고, 배우자선택에서부터 혼인식에 이르기까지의 혼례절차 즉, 배우자선택, 약혼, 혼수 장만 및 함들이⁴⁾, 혼인식(폐백) 및 신혼여행⁵⁾에 대한 행동을 알아보는 것으로 총 19문항으로 구성했으며(신뢰도 $\alpha=.85$), 각 문항은 5점 리커트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혼례행동이 합리적임을 나타낸다. 혼례행동이 합리적이라는 의미는 비합리적이라는 말에 대조되는 개념으로 근대에 보편화된 혼례에 중점을 두어 혼례를 실리적이고 검소하게 치루며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4) 혼례만족 변인

혼례만족 변인은 장은영(1990), 이정우·김명나(1993), 최경숙(1995), 이정우·김명나(1997) 등의 연구를 기초로 본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구성했고(신뢰도 $\alpha=.89$), 혼례절차의 각 단계 즉 배우자선택, 약혼, 혼수장만 및 함들이, 혼인식(폐백) 및 신혼여행 등을 행한 후에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감을 나타낸 것으로 총 16문항이며, 각 문항은 5점 리커트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혼례만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즉 혼례만족이 높다는 의미는 혼례절차의 각 단계를 실제로 행한 후 주부가 느끼는 만족정도가 큰 것을 말한다.

4. 자료수집 및 처리

조사대상으로는 서울시 거주 혼인한지 5년 이내의 주부(신혼기주부)와 최근 5년 이내에 딸을 혼인시킨 어머니(기혼딸을 가진 어머니)를 선정하여 신혼기주부와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의 두 집단으로 각각 조사하여 세대간의 비교연구를 하였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서울시를 강남, 강북, 강동, 강서로 나누고 거기서 다시 몇개의 구를 선정하여 표집했으며,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질문지를 수정 보완한 후 본조사를 했다. 본조사는 1997년 12월 10일부터 1998년 1월 15일 까지 실시했고 총 1000부(신혼기주부: 500부,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 500부)를 배부하여 902부를 회수했으며, 그 중 기재가 미흡한 것을 제외한 790부(신혼기주부: 402부,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 388)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했다. 자료처리는 SPSS PC+를 이용하여 통계치를 산출했으며, Cronbach의 알파계수·VIF지수⁶⁾·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빈도·백분율·평균·표준편차·t-test·회귀분석·경로분석을 실시했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1>

- 4) 함을 준비하는 것은 관계적으로 신랑측에서 이루어지므로 혼례의식에는 포함시켰으나, 혼례행동에서는 신부측에서 이루어지는 함 받는 절차만을 포함시켰다.
- 5) 오늘날의 예식장에서 하는 혼인식과 신혼여행은 현대에 생긴 혼인풍습이므로 혼례행동에는 포함시켰으나, 혼례의식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 6)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의 다변량관계 및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Pearson's 상관계수 및 VIF값($\rightarrow 10$ 미만으로 나타났음)을 산출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경향

변 인	신혼기주부 (N = 402)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 (N = 388)	
	구 분	빈 도 (%)	구 분	빈 도 (%)
학 력	중 졸(중퇴)	6(1.5)	국 졸(중퇴)	56(14.5)
	고 졸(")	117(29.3)	중 졸(")	80(20.8)
	전문대졸(")	61(15.3)	고 졸(")	157(40.8)
	대 졸(")	177(44.4)	대 졸(")	82(21.3)
	대학원졸(")	38(9.5)	대학원졸(")	10(2.6)
	계	399(100)	계	385(100)
직 업	무	73(18.3)	유	91(24.7)
	단순노무직	42(10.5)	무	277(75.3)
	사무직	186(46.6)		
	전문관리직	98(24.6)		
	계	399(100)	계	368(100)
월 평균 가계소득	150만원 미만	60(15.7)	150만원 미만	30(9.4)
	150-200 미만	62(16.2)	150-200 미만	31(9.7)
	200-250 미만	73(19.1)	200-250 미만	64(20.0)
	250-300 미만	66(17.3)	250-300 미만	42(13.1)
	300-350 미만	59(15.5)	300-350 미만	56(17.5)
	350만원 이상	62(16.2)	350만원 이상	97(30.3)
계	382(100)	계	320(100)	
종 교	유	256(64.0)	유	291(76.4)
	무	144(36.0)	무	90(23.6)
	계	400(100)	계	381(100)
혼인형태	연애혼	265(65.9)	연애혼	252(65.5)
	중매혼	137(34.1)	중매혼	133(34.5)
	계	402(100)	계	385(100)

*합계가 다른 것은 무응답 자료 때문임

2. 신혼기주부와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의 혼례의식·혼례행동·혼례 만족의 차이 <표 2>

신혼기주부와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의 혼례의식 및 혼례행동을 비교하면, 전체 혼례의식과 혼례행동 및 각 하위영역에서 모두 신혼기주부가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보다는 혼례의식이 더 근대적이었고 혼례행동은 더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딸의 혼수장만이나 혼례준비과정에서 어머니가 실제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혼례행동의 간소화나 합리화를 위해서는 가정관리자가 될 자녀에게 혼인의례절차와 혼수장만 및 준비에 대해

서도 주도권을 이양하여 자녀들이 의사결정권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신혼기주부와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의 혼례만족을 비교하면, 전체 혼례만족과 혼인식 및 신혼여행을 제외한 영역에서 모두 신혼기주부가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보다는 더 높은 만족을 보였는데, 이는 신혼기주부가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보다는 더 합리적인 혼례행동을 했으므로 더 높은 혼례만족을 보인 것으로 추론된다.

3. 신혼기주부 및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의 혼례의식이 혼례행동에 미치는 영향 <표 3>

신혼기주부와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 모두가 혼례

〈표 2〉 신혼기주부와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의 혼례의식·혼례행동·혼례만족의 차이 (5점 만점)

변인		신혼기주부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		평균의 차	t값 및 유의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혼례의식	배우자선택	3.96	.71	3.47	.76	.49	9.46***
	약 혼	3.77	.79	3.33	.83	.44	7.68***
	혼수 및 합	3.83	.68	3.48	.70	.35	7.13***
	폐백	3.94	.90	3.73	.86	.21	3.22**
	전 체	3.87	.51	3.48	.54	.38	10.27***
혼례행동	배우자선택	4.24	.74	3.84	.78	.40	7.34**
	약 혼	3.96	.86	3.71	.90	.25	4.04***
	혼수장만 및 합들이	3.77	.62	3.65	.63	.12	2.61**
	혼인식(폐백) 및 신혼여행	3.79	.69	3.61	.76	.18	3.37**
	전 체	3.88	.54	3.68	.57	.20	5.04***
혼례만족	배우자선택	3.86	.74	3.49	.79	.37	6.83***
	약 혼	3.55	.70	3.45	.67	.10	2.10*
	혼수장만 및 합들이	3.51	.56	3.38	.52	.13	3.24**
	혼인식(폐백) 및 신혼여행	3.49	.56	3.47	.54	.02	6.5
	전 체	3.55	.49	3.43	.47	.12	3.54***

*P< .05 **P< .01 ***P< .001

〈표 3〉 신혼기주부 및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의 혼례의식이 혼례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조사대상	혼례의식(독립변인)	혼례행동(종속변인)	b	β	상수	R ²	F비
신혼기주부	배우자선택	배우자선택	.57	.55***	상수=1.96	R ² =.30	F비=172.88***
	약 혼	약 혼	.27	.26***	상수=2.91	R ² =.07	F비= 28.13***
	혼수 및 합	혼수장만 및 합들이	.19	.23***	상수=3.06	R ² =.05	F비= 21.72***
	폐백	혼인식 및 신혼여행	.12	.15***	상수=3.33	R ² =.02	F비= 9.47***
	전 체	전 체	.10	.14***	상수=1.87	R ² =.24	F비=128.42***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	배우자선택	배우자선택	.51	.56***	상수=2.06	R ² =.25	F비=129.66***
	약 혼	약 혼	.36	.33***	상수=2.52	R ² =.11	F비= 47.12***
	혼수 및 합	혼수장만 및 합들이	.12	.15***	상수=3.24	R ² =.02	F비= 8.36***
	폐백	혼인식 및 신혼여행	.14	.16***	상수=3.09	R ² =.03	F비= 10.02***
	전 체	전 체	.53	.49***	상수=1.84	R ² =.24	F비=123.52***

***P< .001

의식이 근대적일수록 혼례행동이 합리적임을 알 수 있다. 하위영역별로 보면, 배우자선택에 대한 의식과 행동을 제외한 혼례의식과 혼례행동의 전 영역에서 그 각각에 대한 의식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주부들이 혼례에 대한 의식 자체는 근대적일지라도 전통적인 관행이나

물질주의성향이 강한 천편일률적인 의례절차나 혼례혼수의 상품화 등이 조성된 사회관습이나 여건의 영향을 받아 혼례를 합리적으로 수행하지 못함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혼례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각 시민단체의 건전혼례모델안의 보급화 및 마스크를 통해서 바람직한 혼례문화

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나 계몽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불건전한 혼례나 과소비적 혼례산업의 상품화를 규제할 수 있도록 정부 관련기관의 시책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4. 신혼기주부와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의 객관적, 주관적 변인 · 혼례의식 · 혼례행동 및 혼례만족간의 인과관계

1) 신혼기주부의 객관적, 주관적변인 · 혼례의식 · 혼례행동 및 혼례만족간의 인과관계 <표 4>, <그림 2>, <표 5>

신혼기주부의 혼례만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경우 객관적 · 주관적변인에서는 시모와의 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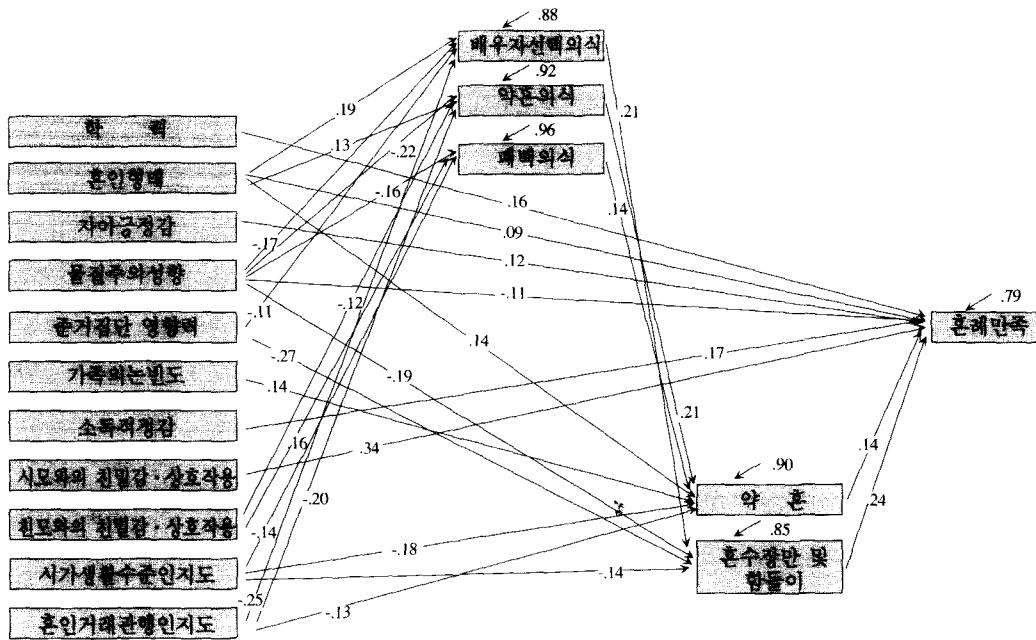
밀감 · 상호작용($\beta=.34$), 소득적정감($\beta=.17$), 학력($\beta=.16$), 자아긍정감($\beta=.12$), 물질주의성향($\beta=-.11$), 혼인형태($\beta=.09$) 등으로 나타났고, 혼례행동 변인에서는 혼수장만 및 함들이($\beta=.24$), 약혼($\beta=.14$)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은 혼례만족의 전체 변량의 38%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신혼기주부의 혼례만족에 직 · 간접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혼인형태, 물질주의성향, 준거집단영향력, 가족의논빈도, 친모와의 친밀감 및 상호작용, 시가생활수준인지도, 혼인거래관행인지도로 나타났다.

매개변인으로 혼례의식변인을 살펴보면, 신혼기주부의 배우자선택에 대한 의식은 혼수장만 및 함들을 경유하여 혼례만족에 간접효과를 나타냈으며, 약혼에 대한 의식은 약혼을 경유하여 혼례만족

<표 4> 인과모형의 회귀분석 : 신혼기주부

독립변인		종속변인		혼례의식						혼례행동				혼례만족	
				배우자선택의식		약혼의식		폐백의식		약혼		혼수장만 및 함들이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객관적 변인	학력	-	-	-	-	-	-	-	-	-	-	-	.04	.16***	
	혼인형태	.28	.19***	.21	.13***	-	-	-	-	.25	.14***	-	-	.10	.09*
주관적 변인	자아긍정감	-	-	-	-	-	-	-	-	-	-	-	-	.15	.12*
	물질주의성향	-.21	-.17**	-.30	-.22**	-.24	-.16**	-	-	-.20	-.19***	-.10	-.11*	-	-
	준거집단영향력	-.10	-.11*	-	-	-	-	-	-	-.22	-.27***	-	-	-	-
	가족의논빈도	-	-	-	-	-	-	.18	.14**	-	-	-	-	-	-
	소득적정감	-	-	-	-	-	-	-	-	-	-	-	-	.13	.17***
	시모와의 친밀감 · 상호작용	-	-	-	-	-	-	-	-	-	-	-	-	.26	.34***
	친모와의 친밀감 · 상호작용	-	-	-.16	-.12*	.25	.16***	-	-	-	-	-	-	-	-
	시가생활수준인지도	-	-	-	-	-.18	-.14**	-.22	-.18***	-.13	-.14**	-	-	-	-
혼인거래관행인지도	-.20	-.25***	-.18	-.20***	-	-	-.13	-.13***	-	-	-	-	-	-	
혼례의식	배우자선택의식	-	-	-	-	-	-	-	-	.18	.21***	-	-	-	-
	약혼의식	-	-	-	-	-	-	.22	.21***	-	-	-	-	-	-
	폐백의식	-	-	-	-	-	-	.13	.14**	-	-	-	-	-	-
혼례행동	약혼	-	-	-	-	-	-	-	-	-	-	-	.08	.14**	
	혼수장만 및 함들이	-	-	-	-	-	-	-	-	-	-	-	.19	.24***	
상수		5.00		5.39		4.10		2.73		4.47		.38			
R ²		.22		.16		.07		.19		.28		.38			
F비		25.7***		18.0***		9.1***		13.8***		35.8***		27.3***			

*P< .05 **P< .01 ***P< .001



〈그림 2〉 인과모형 - 신혼기주부

에 간접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신혼기주부의 폐백에 대한 의식은 약혼을 경유하여 혼례만족에 간접효과를 나타냈다. 매개변인으로 혼례행동변인을 살펴보면, 신혼기주부의 약혼은 객관적·주관적변인이 약혼만을 경유하여 혼례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인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객관적·주관적변인이 혼례만족에 영향을 미칠 때 혼례의식변인 중 약혼, 폐백에 대한 의식을 경유한 다음 다시 경유하는 매개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신혼기주부의 혼수장만 및 함들이는 객관적·주관적변인이 혼수장만 및 함들이만을 경유하여 혼례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인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객관적·주관적변인이 혼례만족에 영향을 미칠 때 배우자선택에 대한 의식을 경유한 다음 다시 경유하는 매개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상에서 볼 때 혼례의식은 혼례만족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고 혼례행동을 경유하여 혼례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신혼기주부의 혼례의식이 근대적일수록 혼례행동이 합리적이며 이로 인하여 혼례만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혼례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리적이고 건전한 혼례의식의 개혁이 중요한 과제이며 이러한 합리적인 혼례행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된다면 건전한 혼례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다.

2)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의 객관적, 주관적변인 혼례의식·혼례행동 및 혼례만족간의 인과관계 <표 6>, <그림 3>, <표 7>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의 혼례만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주관적 변인중 기혼딸의 생활수준인지도($\beta=.28$), 기혼자녀와의 친밀감·상호작용($\beta=.17$), 물질주의성향($\beta=-.14$) 등으로 나타났고, 혼수 및 함에 대한 의식($\beta=-.23$), 혼수장만 및 함들이($\beta=.19$)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은 혼례만족의

<표 5> 인과효과: 신혼기주부

독립변인	총체적 효과*	직접 효과	인과효과	전체 인과효과	비인과적 효과
			간접효과		
학 력	.159	.16	-	.16	-.001
혼인형태	.075	.09	배우자선택의식·혼수장만 및 합들이 경유 : .010 약혼의식·약혼 경유 : .004 약혼 경유 : .020	.124	-.049
자아긍정감	.252	.12	-	.12	.132
물질주의성향	-.262	-.11	배우자선택의식·혼수장만 및 합들이경유 : -.009 약혼의식·약혼 경유 : -.006 폐백의식·약혼 경유 : -.003 혼수장만 및 합들이 경유 : -.046	-.174	-.088
준거집단영향력	-.087	-	혼수장만 및 합들이 경유 : -.065 배우자선택의식·혼수장만 및 합들이경유 : -.005	-.07	-.017
가족의논빈도	.212	-	약혼 경유 : .020	.020	.192
소득적정감	.221	.17	-	.17	.051
시모와의 친밀감·상호작용	.406	.34	-	.34	.066
친모와의 친밀감·상호작용	.230	-	약혼의식·약혼 경유 : -.004 폐백의식·약혼 경유 : .003	-.001	.231
시가생활수준인지도	.112	-	폐백의식·약혼 경유 : -.003 약혼 경유 : -.025 혼수장만 및 합들이 경유 : -.034	-.062	.174
혼인거래관행인지도	-.166	-	배우자선택의식·혼수장만 및 합들이 경유 : -.013 약혼의식·약혼 경유 : -.006 약혼 경유 : -.018	-.037	-.129
배우자선택 의식	.237	-	혼수장만 및 합들이 경유 : .050	.050	.187
약혼 의식	.156	-	약혼 경유 : .029	.029	.127
폐백 의식	.043	-	약혼 경유 : .020	.020	.023
약 혼	.259	.14		.14	.119
혼수장만 및 합들이	.287	.24		.24	.047

*Pearson's correlation 계수

전체 변량의 23%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의 혼례만족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긍정감, 물질주의성향, 준거집단영향력, 기혼딸의 생활수준인지도, 혼인거래관행인지도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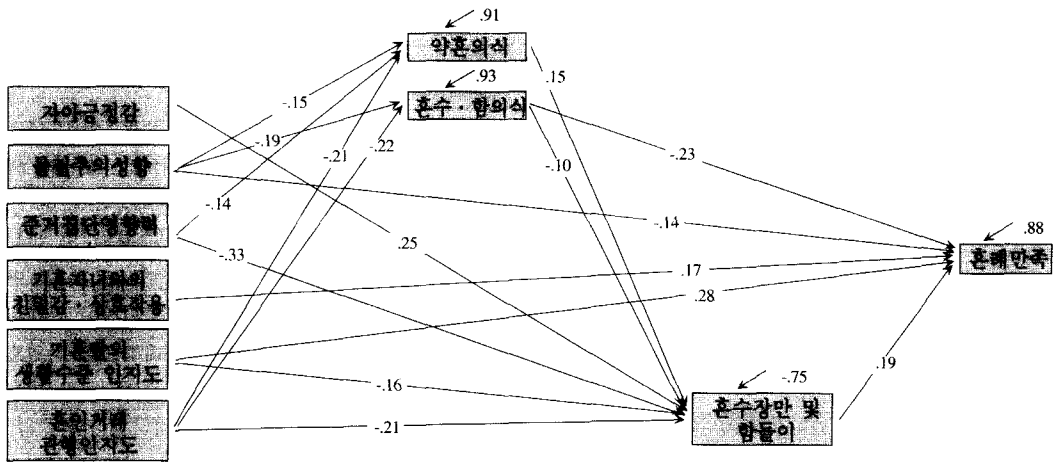
매개변인으로 혼례의식변인을 살펴보면,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의 약혼에 대한 의식은 객관적·주관적변인 중 물질주의성향, 준거집단영향력, 혼인거

래관행인지도가 경유하는 매개변인으로 나타났고 혼수 및 함에 대한 의식은 물질주의성향, 혼인거래관행인지도가 경유하는 매개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혼과 혼수 및 함에 대한 의식은 혼례행동변인 중 혼수장만 및 합들이를 경유하여 혼례만족에 간접효과를 미치고 있다. 여기서 약혼에 대한 의식은 근대적일수록, 반면 혼수 및 함에 대한 의식은 전통적일수록 혼수장만 및 합들이를 합리적으로 하게되

<표 6> 인과모형의 회귀분석 :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

독립변인	종속변인	혼례의식				혼례행동		혼례만족	
		약혼의식		혼수 및 함의식		혼수장만 및 함들이		b	β
		b	β	b	β	b	β		
주관적 변인	자아긍정감	-	-	-	-	.33	.25***	-	-
	물질주의성향	-.19	-.15*	-.22	-.19**	-	-	-.10	-.14*
	준거집단영향력	-.15	-.14*	-	-	-.27	-.33***	-	-
	기혼자녀와의 친밀감· 상호작용	-	-	-	-	-	-	.14	.17**
	기혼딸의생활수준인지도	-	-	-	-	-.15	-.16***	.20	.28***
	혼인거래관행인지도	-.18	-.21**	-.17	-.22***	-.14	-.21***	-	-
혼례의식	약혼 의식	-	-	-	-	.11	.15**	-	-
	혼수 및 함 의식	-	-	-	-	-.08	-.10*	-.15	-.23***
혼례행동	혼수장만 및 함들이	-	-	-	-	-	-	.14	.19**
상수		4.69		4.38		3.84		2.60	
R ²		.17		.13		.44		.23	
F비		199***		21.6***		382***		17.5***	

*P< .05 **P< .01 ***P< .001



<그림 3> 인과모형 -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

고 혼수장만 및 함들이를 합리적으로 할수록 혼례만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록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가 혼수 및 함에 대한 근대적인 의식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자신의 의지나 가치와는 상관없이 불합리한

사회제도나 규범의 영향을 받아 바람직하지 못한 혼례행동을 초래하게 되어 호화혼수 문제 및 지나친 격식위주의 함들이 행사가 행해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건전한 혼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의식개혁과 더불어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표 7〉 인과효과 :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

독립변인	총체적 효과*	직접 효과	인과효과	
			간접효과	전체 인과효과
자아긍정감	.221	-	혼수장만 및 함들이 경유 : .048	.048
물질주의성향	-.138	-.14	약혼의식·혼수장만 및 함들이 경유: -.004 혼수 및 함 의식·혼수장만 및 함들이 경유: .004 혼수 및 함 의식 경유 : .044	-.096
준거집단영향력	-.022	-	약혼의식·혼수장만 및 함들이 경유: -.004 혼수장만 및 함들이 경유 : -.063	-.067
기혼자녀와의 친밀감· 상호작용	.283	.17	-	.17
기혼딸의 생활수준인지도	.269	.28	혼수장만 및 함들이 경유 : -.030	.25
혼인거래관행인지도	-.090	-	약혼의식·혼수장만 및 함들이 경유: -.006 혼수 및 함 의식·혼수장만 및 함들이 경유: -.004 혼수장만 및 함들이 경유 : .040 혼수 및 함 의식 경유 : .051	.001
약혼 의식	-.013	-	혼수장만 및 함들이 경유 : .029	.029
혼수 및 함 의식	-.196	-.23	혼수장만 및 함들이 경유 : -.019	-.249
혼수장만 및 함들이	.162	.19	-	.19

*Pearson's correlation 계수

제도적인 뒷받침도 요구된다.

매개변인으로 혼례행동변인을 살펴보면,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의 혼수장만 및 함들이 경우 객관적·주관적변인이 혼수장만 및 함들이만을 경유하여 혼례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혼례의식변인(약혼, 혼수 및 함)을 경유한 다음 다시 혼수장만 및 함들을 경유하여 혼례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 신혼기주부와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의 인과관계 비교

인과관계에서 차이를 보인 것은 신혼기주부는 배우자선택에 대한 의식이 혼수장만 및 함들을 경유하여 혼례만족에 영향을 미쳤으나,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는 혼수 및 함에 대한 의식이 혼수장만 및 함들을 경유하여 혼례만족에 간접효과를 나타냈다. 즉 근대적인 배우자선택관을 지닌 신혼기주부일수록 합리적인 혼수장만 및 함들을 하게 되어 혼

례만족이 높았는데, 앞으로 미혼여성들이 중매혼을 할 경우 혼수장만이나 함을 받을 때도 부모의 의사가 개입될 가능성이 크므로 체면의식이 강한 양가 부모를 잘 설득하여 합리적인 혼수장만 및 함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는 혼수 및 함에 대한 의식이 근대적일수록 혼수장만 및 함들을 비합리적으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혼례만족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로 미루어 볼 때, 혼인적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혼수나 함에 대해 건전한 의식을 확립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무엇보다 요구되며, 이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차원에서의 교육프로그램의 보급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VI. 결론 및 제언

다음은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신혼기주부가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보다는 더 근대적인 혼례의식과 합리적인 혼례행동 및 높은 혼례만족이 나타났다. 신혼기주부가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보다 혼례의식이 더 근대적으로 나타난 점을 볼 때, 자녀세대보다는 자녀를 혼인시키려는 어머니들의 의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어머니(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신혼기주부가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보다 더 합리적인 혼례행동을 보인 것은 과소비적 양상을 보일 수 있는 혼례⁷⁾에서 앞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혼인시킬 신혼기주부들의 건전한 혼례행동을 엿볼 수 있어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고 생각된다.

둘째, 신혼기주부와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 모두 혼례의식은 혼례행동에 영향을 미쳐 혼례의식이 근대적일수록 혼례행동이 합리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바람직한 혼례문화에 대한 개개인의 건전한 의식 개혁을 위한 전국민적 의식 개혁 운동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혼례만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신혼기주부와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 모두 혼수장만 및 합들이로 나타났으며, 혼수장만 및 합들이를 합리적으로 할수록 혼례만족이 높았다. 환언하면 혼수나 합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과소비와 허례허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혼수장만 및 합들이는 주부들의 혼례만족을 높이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는 혼례행동 중 혼수장만 및 합들이가, 신혼기주부는 약혼과 혼수장만 및 합들이가 혼례만족의 중요한 매개변인으로 나타난 점을 미루어 볼 때, 전체 혼례행동에 있어서 신부측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 약혼과 혼수장만의 간소화나 합리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표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신혼기주부를 혼인한 지 5년이내의 주부로,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를 최근 5년이내에 딸을 혼인시킨 경험이 있는 어머니로 제한하였다.

둘째, 혼례의식과 혼례행동 및 혼례만족 척도의

구성내용을 신부측에 중점을 둔 배우자선택, 약혼, 혼수 및 합, 혼인식(폐백) 및 신혼여행 등의 4단계 하위영역으로 제한하여 구성하였다.

셋째, 우리 나라의 일반적 혼수관행은 신랑이 신부보다 혼수비지출이 큰 불균등적 관행⁸⁾이라고 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혼수를 예물, 예단, 신혼살림으로 한정시켜서 신부측에서 갖는 지출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신랑측에서 마련하는 주택 등은 혼수에서 제외시켰다.

다음에서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혼례란 일방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는 신랑측도 포함시킨 다각적인 관점에서의 혼례 연구가 필요하며, 혼례절차도 좀 더 세분화시켜서 혼례 전 영역을 포함할 수 있는 혼례 척도의 정교화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혼례 양상은 지역과 계층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나므로 지역과 계층을 고려한 치밀하고 구체적인 혼례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건전한 혼례와 불건전한 혼례를 치른 여러 사례들을 덧붙여서 심층적으로 연구해 보는 것도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딸의 혼수장만 등에서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친정어머니이지만 시어머니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므로 딸과 친정어머니 및 시어머니를 함께 포함시켜 혼례에 관하여 연구하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친정어머니와 기혼딸을 짝(pair)으로 하는 연구도 매우 의미있으리라 생각된다.

7) 우리나라 평균 혼례비용은 7,500만원으로 근로자월급의 35달치와 총비용 국가예산의 42%에 해당되며 미국의 48배, 일본의 38배(IMF 환율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일보, 1997. 10. 18).

8) 신랑의 주택마련 비율이 김경희(1983)에 의하면 약 95%라고 하였고, 김모란(1994)에 의하면 84.8%라고 보고하여 혼례에 있어서 신랑의 주 지출항목은 주택비라고 볼 수 있으며, '총혼비' 지출 비율을 볼 때 일반적으로 신랑측이 신부측보다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선행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는 혼수문제는 신부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신부 및 신부가족이 겪는 부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참고문헌

- 1) 김득중(1997), 실천예절개론, 서울: 교문사, 321.
- 2) 김명나(1989), "도시주부의 혼·제례에 대한 의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69-73.
- 3) 김모란(1994), "한국사회의 혼인거래관행에 대한 연구-도시중산층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69.
- 4) 김순기(1993), "기혼여성의 시어머니 및 친정어머니의 상호지지에 관한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7-11.
- 5) 박미금(1993), "부부의 경제생활만족도 비교분석",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45.
- 6) 박민자(1991), "도시 중간계층의 혼인거래관행에 관한 연구", 이효재 외,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혼인, 서울: 또하나의 문화, 168.
- 7) 박수정(1992), "중년기부인의 사회관계망과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24.
- 8) 박숙자(1991), "도시 저소득층의 혼인양태", 이효재 외,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혼인, 서울: 또하나의 문화, 105.
- 9) 박은령(1992), "고등학생의 자아긍정감과 가족생활의 가치의식에 관한 연구",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 10) 박은아(1994), "자기존중감, 사회적 인정욕구, 돈에 대한 태도에 따른 현시적 소비",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 11) 박진숙(1984), "대학생의 가족의식에 관한 연구", 대안가정학회지, 22(3), 129-148.
- 12) 박한진(1995), "제품특성에 따른 준거집단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 한국 외국어대 석사학위논문, 9-19.
- 13) 박혜인(1987), "한국 전통혼례의 가족사적 고찰",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46.
- 14) _____(1988), "한국의 전통혼례 연구-서유부가 혼속을 중심으로-",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63-108.
- 15) 백경미(1995), "도시주부의 과소비성향과 영향요인",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53.
- 16) 손유미(1991), "서울거주 주부의 통과의례에 대한 의식과 의례절식의 이용실태에 대한 연구",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54-69.
- 17) 손현숙(1991), "도시주부의 자아긍정감과 의사결정공동참여가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 박사학위논문.
- 18) 송인숙(1993), "소비자의 구매증독성향 및 영향요인",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45.
- 19) 신기영(1991), "중년기주부의 위기감과 사회관계망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3-15.
- 20) 안경덕(1994), "청소년의 제품구매에 준거집단의 영향에 관한 연구", 청주대 석사학위논문, 8-10.
- 21) 안명자(1994), "친족지원과 사별한 편모의 심리적 복지감",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10-14.
- 22) 오용구(1992),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미치는 준거집단 영향력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 석사학위논문, 21.
- 23) 유지영·김명자(1996), "중년기부인의 사회적 지원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155.
- 24) 유현주(1991), "미혼남성의 결혼의식 및 결혼비용 지출에 관한 연구",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23-59.
- 25) 이경희(1987),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사회관계망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3-19.
- 26) 이기춘·조은정(1992), "도시 신혼기계의 결혼비용과 신혼거자금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1), 111.
- 27) 이길표(1982), "가례를 통해 본 한국인의 의식구조 연구-혼·제례를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5-18.
- 28) 이길표·주영애(1989), "가정경영관과 혼례행례와의 관계연구", 성신연구논문집, 120.
- 29) 이명숙(1995), "도시 전업주부의 가치지향성·가정관리전략·가정생활만족도",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30.
- 30) 이상원(1993), "결혼초기 부부의 부모와의 유대

- 및 결혼만족도”,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31) 이선영(1992), “혼인행사에 관한 의식과 행동에 대한 연구-서울시 거주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상신여대 석사학위논문, 14-38.
- 32) 이영희(1987), “핵가족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시가 및 친가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4.
- 33) 이인숙(1995), “기혼여성의 가족역할변동에 따른 사회관계망의 특징변화에 관한 연구”, 동아대 석사학위논문, 11-20.
- 34) 이정우·김명나(1993), “주부의 가정의례에 대한 의식, 행동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생활과학연구지, 8, 40-43.
- 35) _____(1997), “도시주부의 혼례행동 및 혼례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 11-13.
- 36) 이정우·안동선(1989), “한국 기혼여성의 가정경영관과 커뮤니케이션·상호작용”, 숙명여대 생활과학연구지, 3, 13-23.
- 37) 이행숙(1982), “우리나라 여성의 결혼의식과 혼비지출에 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69-73.
- 38) 임 정(1988), “주부의 가계복지 인지 및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1.
- 39) 장은영(1990), “도시주부의 혼수관행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46-60.
- 40) 장철수(1995), 한국의 관혼상제, 서울: 집문당, 140.
- 41) 정용선 외(1995), “혼수의 사회적 의미 및 혼수가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 사회교환이론적 접근”, 대한가정학회지, 33(6), 134.
- 42) 조영희(1996), “청소년 소비자의 물질주의성향과 준거집단이 의복동조에 미치는 영향”, 울산대 석사학위논문, 22.
- 43) 최경숙(1995), “결혼의례절차와 물질적 재화 교환의 관행에 대한 연구 -도시 중간계층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3-91.
- 44) 하상희(1994), “도시부부의 커뮤니케이션과 의사결정참여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33.
- 45) 한경순(1986), “혼·상·제례 의식에 관한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13-18.
- 46) 혜원편집부(1996), 관혼상제, 서울: 혜원출판사, 188.
- 47) 황영진(1992), “소비자 구매의사결정에 있어서 준거집단의 영향력 연구”, 국민대 석사학위논문, 68.
- 48) 조선일보(1997. 10. 18, 1998. 1. 14).
- 49) 중앙일보(1998. 4. 21).
- 50)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1990), 건전소비생활을 위한 세미나(소비자보호 세미나), 50-51
- 51) 저축추진중앙위원회(1990), 혼수에 관한 의식과 실태조사.
- 52) _____(1993, 1996), 결혼비용 지출 실태 및 의식조사 보고, 41.
- 53) 한국가정생활개선진흥회(1997), 오늘의 혼례문화 그 진단과 모색, 51-82.
- 54) 한국소비자보호원(1990, 1997), 혼수실태조사 결과, 11-28.
- 55) 한국여성교양학회(1995), 한국여성교양학회지, 제2집, 188.
- 56) 이재(李緯), 사례편람(四禮便覽).
- 57) 우봉이씨대종회, 국역 사례편람, 서울: 이화문화출판사.
- 58) 예기(禮記), 관의(冠義), 혼의(昏義).
- 59) 예절지도사회, 국역 주자가례(朱子家禮).
- 60) Belk, R.W.(1985), “Materialism: Trait aspects of living in the material world”,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 61) Richins, M.L.(1987), “Media, Materialism, and Human Happiness”,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18.
- 62) Sumarwan, U. & Hira, T.K.(1993), “The effects of perceived locus of control and perceived income adequacy on satisfaction with financial status of rural household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s Issues, 14(4).